

# 광주 부동산 분양시장 “봄바람 불어라”

### 4~6월 4,271세대 새집들이...전남 702세대 분양물량도 풍성...실 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광주·전남지역 부동산시장이 금융권 대출 규제 등으로 보험세 국면으로 접어들어 상승기에 4,973세대가 새 집들이를 할 예정이다. 또한 2분기에 광주·전남지역 일반분양이 5,974가구 가 나설 계획이어서 지역 아파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실수요자들의 관

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파트 입주 물량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4~6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 현황'에 따르면 오는 4월~6월기간동안 광주지역은 4,271가구, 전남은 702가구 등 총 4,973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

다.  
광주 입주 예정 물량은 전년 대비 28.8% 증가한 반면 전남은 36.1% 감소한 수치다.  
광주·전남 입주 예정 물량을 보면 4월에는 광주에서는 ▲광산구 점단 금호 어울림 더 테라스 460가구, 전남에서는 ▲순천 조례동 영무에디움 301가구 등 770가구가 집들이에 나선다.  
5월 광주에서는 ▲남구 효천1B2블록 시티프라디움 1,164가구 ▲동구 산수동 무등산 그린벨 로제비앙 1,074가구

▲동구 용산지구 계룡리슈빌 2블록 820가구 ▲서구 삼촌동 상무 한국아텔리움 267가구, 전남은 ▲목포 용해2지구 모아엘가 에듀파크 6-2 259가구 등 총 3,584가구가 새 집으로 이사할 예정이다.  
6월 광주에서는 ▲동구 내남지구 1블록 진아리채 268가구 ▲서구 화정동 엘리체 퍼스티지 218가구, 전남은 ▲나주 송월 남양휴튼 더 퍼스트 133가구 등 619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한다.  
◇아파트 분양 물량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과 금융권 대출 규제가 가시화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분양사업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 4~5월까지 광주에 5,800여 가구의 분양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오히려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은 오히려 내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4~5월까지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총 9만 5,734가구(임대 아파트 제외)로 조사

됐다. 지방에서는 광주지역은 5,787가구, 전남지역 1,733가구 등 총 7,520가구 분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주택건설업계는 최근 주택거래가 급감하고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청약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짐에 따라 분양가 책정과 일정 잡기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사랑방 부동산 최현용 팀장은 “남구·광산구의 주택가격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어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등의 추가 규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 지역은 학군·생활편리성 등으로 수요요인이 꾸준히 급격히 하락보다는 점진적으로 적정가격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 골프 장타 챌린지 이벤트 롯데아울렛 월드킵점

롯데아울렛 광주월드킵점은 본격적인 골프 시즌을 맞아 오는 20~21일 고객들을 대상으로 골프 장타 챌린지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온 가족이 체험 가능한 퍼팅 체험존과 행사 기간중 비거리가 가장 멀리 나가는 고객을 선발하는 장타 챌린지로 진행된다.  
장타랭킹 남·여 각 1명에게는 20만원 상당의 의류 교환권을 지급하며, 비거리 구간별 다양한 경품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롯데아울렛 광주월드킵점 1층 정문 광장에서 진행되며, 현장에서 접수 가능하다.  
/길용현 기자



금호타이어가 지난 17일 광산구, 시교육연구정보원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호타이어 제공

### 광주전남벤처협회-조달청 기업 공공판로 확대 모색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와 광주지방조달청은 지역 벤처 기업 공공 판로확대를 위해 '광주조달청장 간담회 및 벤처나라 설명회'를 지난 17일 김대중컨벤션센터 내 벨리하우스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조달청의 올해 중점추진업무 중 하나인 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협회회원사 및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공공 조달시장에서 벤처기업의 판로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이 수렴됐다.  
이어 벤처나라 및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제도 등 조달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및 판로 확보 방안에 대해서 실질적인 논의도 이뤄졌다.  
김명술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장은 “열악한 여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벤처기업에 대한 조달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지숙 광주조달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벤처기업의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는 가장 큰 자산이자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며 “지역 기업들도 신기술 개발과 품질향상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길용현 기자

## 금호타이어, 놀이예술교육 활성화 '시동'

### 광산구·교육연구정보원 지역인재 양성 MOU

금호타이어가 지난 17일 광산구 월곡동에 위치한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에서 금호타이어-광산구-시교육연구정보원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의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 자리에는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전대진 사장, 김성호 광산구청장, 이상재 시교육연구정보원장을 비롯한 성덕중학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로찾아간 굴림' 이지역사회 기반의 새로운 교육협력 모델로 성

장할 수 있도록 공동협력을 다짐했다.  
민·관·학 공동프로젝트 '굴림'은 놀이를 통한 예술교육 활성화로 미래형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놀이 프로그램으로, 금호타이어는 페타이어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대진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호타이어는 지역사회 교육·문화 우수사례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과 지원을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2013년부터 학생들을 초청하여 모터스포츠 체험교육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부환경을 조성하는 '희망의공부방' 사업을 진행하고 지난해까지 14개소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이와함께 자유학기제를 맞아 일선 중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진로체험 교육' 등 청소년 교육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길용현 기자

### 롯데백화점 광주점, 프랑스 '꼬르떼' 특별초대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오는 20~21일 프랑스의 럭셔리 슈즈 브랜드인 '꼬르떼'를 지역 최초로 선보인다.  
'꼬르떼'는 프랑스가 지정한 단 한 명의 구두 명장 '피에르 꼬르떼'가 수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고 있는 럭셔리 슈즈 브랜드로 100% 수작업을

통해 만들어지고 약 250여가지의 공정을 거쳐 완성되는 구두다.  
이번 특별 초청행사는 롯데백화점 광주점 9층 MVG라운지에서 사전 예약형태로 진행되며 꼬르떼 코리아의 컬러 리스트가 현장에서 고객이 직접 선택한 구두에 파티나 염색을 선보여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구두를 맞춤 제작한다.  
맞춤 구두의 가격은 200만원대부터 2,000만원대이며, 예약문의는 롯데백화점 광주점 MVG 라운지로 하면 된다. 롯데백화점 호남충청지역 남동원 남성패션 치프 바이어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하이 퀄리티의 상품을 광주지역 고객들이 경험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 한우 소비 열풍...지역 유통업계 '분주'

명절 때 프리미엄 선물로만 여겨졌던 한우를 찾는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지역유통업계가 숙성 한우 출시, 할인 행사 등을 마련해 유통 시장 선전에 나서고 있다.  
18일 이마트에 따르면 '웻 에이징(Wet Aging)' 한우 등심 가격을 올해 상반기 내내 동결하고, 숙성한우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숙성 한우가 <등심+채끝> 매출의 80%, 한우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실제 '웻 에이징' 한우의 급속한 대중화로, 올해(1월1일~4월11일) 이마트의 숙성 한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한우 소비 방법이 기존의 불판 구이 뿐만 아니라 스테이크로 다양화되면서, 한우 스테이크 정육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올해 무려 101% 뛰었다.  
/길용현기자

한우 등심과 채끝 부위 스테이크가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우의 대중화 추세에 맞춰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지역 롯데마트도 다양한 한우 할인 행사에 나섰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한우 강화' 일환으로 지역 특색에 맞춘 고기를 공급한다. 지하1층 정육매장에서 오는 5월3일~8일까지 고장한우 특집전을 연다. 한우1등급 등심(100g) 우대가 7,980원, 한우1등급국거리(100g) 우대가 3,980원 등에 판매되며 5만원 이상 구매시 복분자즙을 선착순 50명만 정으로 증정한다.  
롯데마트 상무점에서도 18일부터 24일까지 명품한우인종 2년연속수상을 기념해 '지리산 순한 생한우'를 열포인트 회원 고객에게 전품목 25%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  
/서미애 기자

### 보해양조-전남도 제로페이 MOU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전라남도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8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제로페이 활성화 업무협약식'에는 보해양조 임지선 대표와 김영록 도지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는 광주전남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보해양조는 대표 제품인 일새주라벨에 홍보 문구를 넣어 제로페이를 알릴 계획이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광주전남 대표 기업으로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전남도와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며 “보해가 가진 영업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서 제로페이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미애 기자



보해양조 임지선 대표이사가 전라남도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보해양조 제공

### 기업지원사업 통합설명회 성료

#### 광주TP, 주력산업 육성 등 종합 정보 제공

지역 중소기업들이 유용한 기업지원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설명회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 17일 광주테크노파크 2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통합설명회에서는 광주 지역 소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광주지역

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 ▲주력산업 사업화신속(Fast-Track)지원사업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 ▲지역특화산업 수출세척기 지원사업 ▲광주시 2019년도 지역스타기업 육성사업 등 모두 5개 사업의 세부 지원 절차와 방법을 안내했다.  
특히 이날 광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역주력산업과 지역대표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성장 중심의 기업지원사업 개편 사항까지 종합적인 정

보를 제공하고, 지역발전 정책의 개편방안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광주테크노파크 김성진 원장은 “이번 설명회는 다양한 기업지원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업들의 사업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 등을 전문가들과 직접 상담 할 수 있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었다”며 “앞으로도 기업지원이 필요한 우리지역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도 광주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 '2019년도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은 현재 모집 중이며, 모집공고는 광주테크노파크홈페이지(www.git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길용현 기자



광주테크노파크가 최근 광주테크노파크 2층 대회의실에서 '기업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주테크노파크 제공